

바른사회 Meet Concert

독일의 통일과 지도자의 역할

自由統一國民聯合

2021.6.2.

申 東春

독일 통일의 역사

1. 신성로마제국 (962-1806): 제1제국 나폴레옹 전쟁으로 멸망
2.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1618-1701)
3. 프로이센 (1701-1918)
 - 가.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1740-1748):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에 쉐레지엔을 양도
 - 나.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전쟁 (1848-1852, 1864): 제1,2차 덴마크 전쟁, 프로이센이 덴마크에 승리하고 두 지역을 차지
 - 다. 프로이센-오스트리아 전쟁 (1866): 프로이센의 북독일연맹 결성
4. **독일제국의 통일 (1871):**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
제2제국 (1871-1918)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1871): 나폴레옹 3세 포로,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독일제국 선포식
5. 바이마르공화국 (1919-1933)
6. 나치스의 제3제국 (1933-1945)
7. **동서독(1945-1990)의 통일 (1990): 120년만의 재통일**

1871-1918 독일제국



제1,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영토 상실 (1910년 54만 km², 1945년 35만 km²)



들어가며

-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값지고 값비싼 교훈을 줌
-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는 통일**, 서독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며 동독에 적용
- **힘의 우위 정책** (x 동방정책 Ost Politik)
- 서독은 동독에 대한 원조로 양보를 지속적으로 얻어냄 (**대가 없는 경제 지원 불가**)
-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간 대결에서 공산진영의 몰락으로 독일 통일의 국제적 여건이 조성
- 통일 직전 서독이 소련에 대한 **90억 달러 차관 제공**, **미국이 소련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
- 1989.10월 이후 동독 주민의 대량 탈출과 시위가 시작되며 서독 콜 총리는 **신속한 통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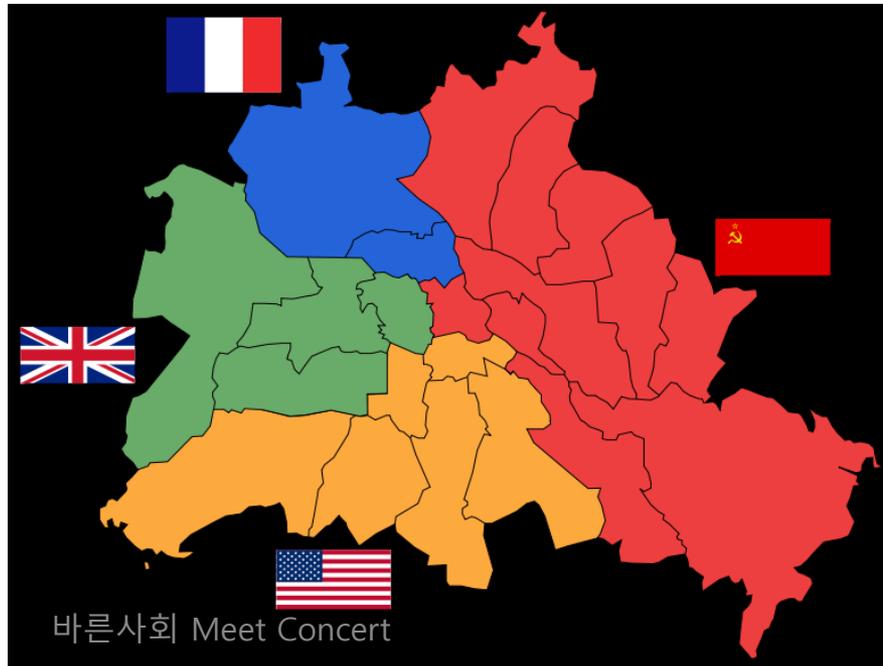
- 동독의 여행 허가가 동독민의 탈출을 촉발,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
- 1989.11.9. 동독 공보 담당 정치국원 샤보프스키의 실수: 일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날 당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여행법 개정안을 설명하다가 “**지금부터 누구나 자유여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잘못 설명
- 1990년의 독일 통일은 동독 주민의 자유에 대한 향수와 더 나은 체제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원동력
-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15개 공화국이 독립하여 **소련의 통제력이 느슨해짐**
- 동구 위성국가들도 소련의 지배에서 벗어나 대부분 **나토**로 편입
- 1917년 시작된 공산주의 실험에 사실상 종지부

제2차 세계대전 중 베를린 폭격



독일의 분단

- 1945년 5월 독일 항복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4개국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었음 (미 소 영 불) : 옛 수도 **베를린의 동서분할**이 **결국 아킬레스건이 되어 통일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연합국에 의해 독일이 분할된 원래 목적은 독일이 다시 결합하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 1945년 얄타 회담 예비 협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프랑스·영국·미국의 점령 지역은 **독일연방공화국**이 되었고, 옛날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 지역은 동쪽 지역의 일부가 폴란드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으로 흡수된 후, 공산주의 국가인 **독일민주공화국**이 됨
- 전후 냉전체제의 시작으로 서구의 경제 부흥을 꾀하는 **마셜 플랜의 과정에서 베를린이 봉쇄**되었고, 공수와 함께 1948년에 와서는 미국 경제 지역과 소련 점령 지역에서 서부 지역 경제개발 지원과 별도의 화폐 개혁이 일어남

동서베를린



베를린 봉쇄 (Berlin Blockade)

- 1948년 6월 24일부터 1949년 5월 12일 사이에 소련이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장악했던 서베를린의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봉쇄 (소련이 일방적으로 항공로를 제외한 육상 및 수상 통행을 모두 봉쇄)
- 전쟁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서베를린 사람들과의 생활고가 베를린 봉쇄로 더욱 심각해졌으며, 연합국은 비행기로 식량과 연료를 제공
- 공수 작전 기간 동안 총 278,228 편의 항공기가 투입되어 2,326,406 톤의 물자를 수송하였으며 수송된 물자의 환산 가액은 당시 가격으로 미화 4백만 달러에 이르렀음
- 공수작전에 투입된 항공기 중 25대가 악천후 등에 의해 추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101 명이 희생
- 동독 주민들은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1949년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정부가 수립된 두 개의 독일은 서로가 독일 연방의 적법한 계승자라 주장하며 경쟁

베를린 봉쇄



스탈린의 통일제안

- 독일의 통일은 1952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처음으로 제안
- 폴란드와 독일 사이의 국경인 오데르-나이세선 (Oder-Neisse) 서쪽의 독일을 **중립국**으로 만들며 모든 군대를 1년 안에 철수시킨다는 내용
- 콘라트 아데나워가 이끄는 서독 정부는 국제적인 주도 아래의 선거를 열어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련은 이를 거부
- 스탈린은 또한 독일이 바르샤바 조약을 받아들여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남는다면 1937년 기준의 국경선을 보장해 주겠다고도 제안

베를린 장벽

- 동독 정부는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금지했으며, **1961년 베를린 장벽을 세움**
 - 자유를 찾아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동독 탈출자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
- **잘츠기터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
 - 1961년 동서독 국경지역인 잘츠기터(Salzgitter)에 **동독의 악행 기록과 인권탄압 사례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 중앙기록보존소(Erfassungsstelle)를 설치하여 통일 시까지 30여 년간 약 8만 건의 기록을 유지
 - 이 기록보존소는 당초 통일을 염두에 둔 실용적 목적보다는 동독 관리들에 대한 상징적·경고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통일 후
 - ① 동독지역 사법체계 신설을 위한 동독 판·검사의 재임용 심사 자료
 - ② 동독치하에서 박해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복권 및 보상심사 자료
 - ③ 반 법치국가적 범죄행위 가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자료등으로 요긴하게 활용되었다.



케네디의 베를린 장벽 방문



할슈타인 독트린

- 서독과 NATO는 할슈타인 독트린에 따라 동독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할슈타인 독트린**(영어: **Hallstein Doctrine**)이란 서독의 발터 할슈타인이 1955년에 내세운 외교 원칙으로,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소련 제외)와는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정책

서독(독일연방공화국)의 동방정책

- 1969년 수상으로 취임한 빌리 브란트의 화해 정책인 **동방 정책(Ost Politik)**으로 서독은 동독을 포함한 유럽 공산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감
- 빌리 브란트는 제2차 세계 대전 피해국가 폴란드를 방문하여 전쟁 희생자 비석앞에 직접 무릎을 꿇어 화제가 되었으며, 동독을 방문

(그의 비서 귄터 기욤이 동독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브란트 사임의 한 원인이 되었음)

- **1971년 양독간 기본조약 체결, 1973년 유엔 동시 가입**
- 동서독은 1974년 외교 관계 수립 (남북한은 1991년 유엔 동시 가입)
- 미국과 서독 내 보수층들은 반공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국가들과의 화해와 대화를 통해 이념대립을 극복하려는 빌리 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었음

1970.12.7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을 방문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 이 사건이 유명한
'브란트의 무릎꿇기(Kniefall in Warschau)'이다



미디어가 통일에 미친 영향

- 1973년 동독 정부는 서독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허용
- 동독 사람들은 인민들이 브라운관에 비친 **서독 사회의 풍요로움과 자유**를 보면서 동독 정부에 반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
- 동독 정부의 서독 텔레비전 시청 허용의 여파는 매우 컸음
- 동독의 한 유치원 교사가 텔레비전 뉴스 방영 전에 방송하는 시계 화면을 유치원생들에게 그리라고 시켰는데, 80%가 서독 텔레비전 뉴스 방영 전에 방송하는 시계 화면을 그렸음

통행의 자유

- 남북한과 달리 동서독 간에는 통행과 서신 교환이 허용
- 동독 주민은 국가의 허가를 받으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으며, 서독 주민은 동독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동독방문이 가능
- 단, 방문 목적과 기간 등을 확인하는 입국 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동독 공산주의 체제를 비판한 반공 인사, 동독 탈출자와 그 협조자는 심사과정과 검문소의 검문과정에서 입국이 거부
- 서독인이 심사에 통과하면 하루에 **25동독마르크**씩 바꾸는 **의무교환**(독일어: Zwangs-Umtausch)을 하고, 바꾼 돈은 외화수입과 암시장에서의 현금교환 방지를 위해 동독체류 기간 동안 모두 쓰게 했음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 통일에의 영향

-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에 소련의 지도자가 되고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채택하면서 중부 유럽 국가들의 개혁과 개방을 허용
- 1989년 8월 헝가리가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의 제한을 풀자 13,000여명의 동독 주민이 같은 공산국가였던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탈출
- 1989년 10월 7일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월요일의 데모를 비롯하여 동독 정부에 대항하는 많은 데모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인민이다(독일어: **Wir Sind Das Volk**) 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였으며, 1989년 11월 베를린시위 때에는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라며 독일통일을 요구
- 1989년 11월 9일에 국경제한이 풀리자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 서베를린에 갔으며, 동·서베를린을 가로막던 검문소가 없어졌음
- 1989.12.18 콜수상의 드레스덴연설: **동독의 자유를 위한 투쟁 고취**

라이프니쯔 성니콜라스 교회



베를린 장벽의 붕괴



동독의 민주 개혁과 자유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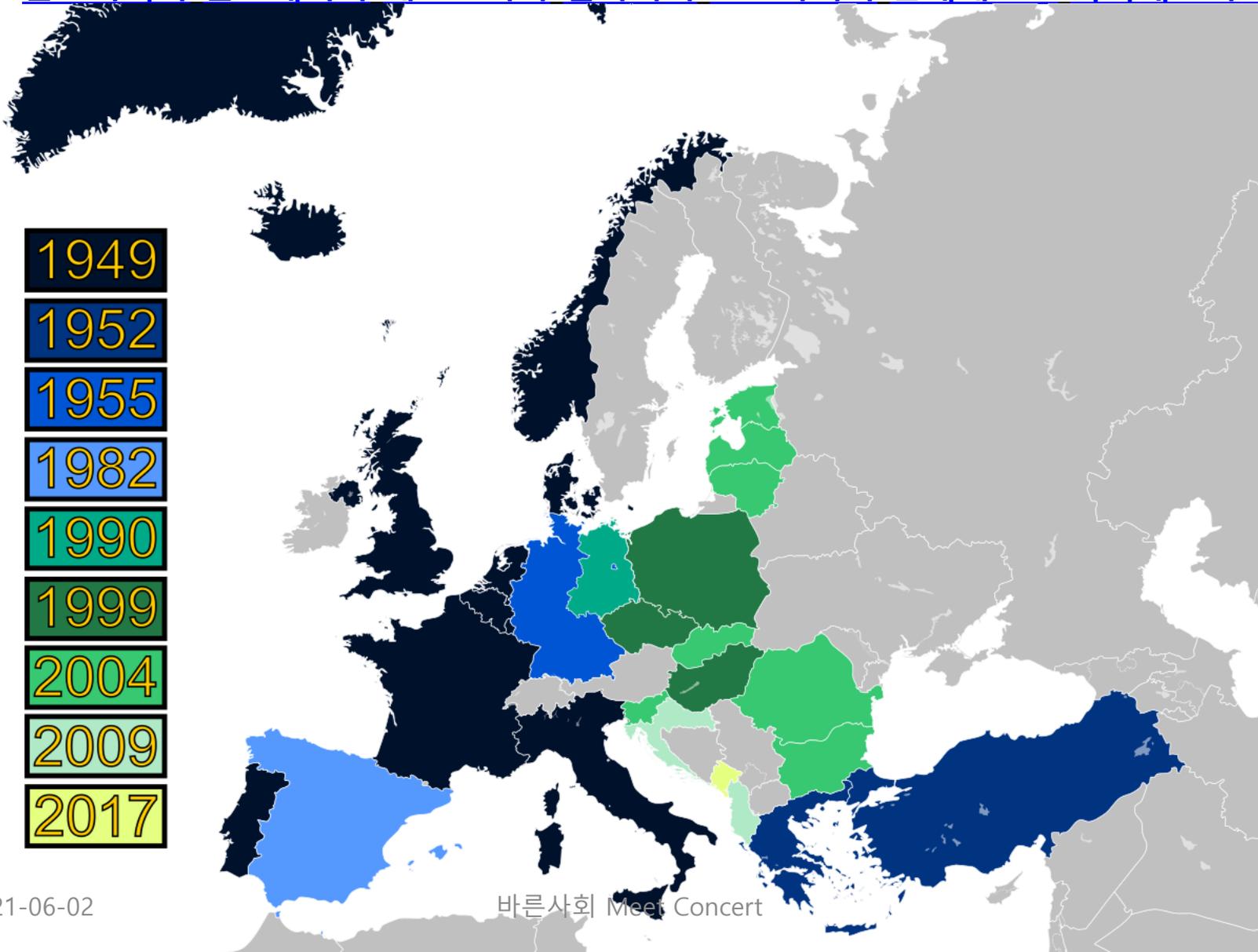
- 1989년 한스 모도로프 동독 공산당 서기장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민주개혁을 이루었으며,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
-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SED(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1당 독재가 폐지**
-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대량 이주하여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은 마비되었고, 국민을 감시하던 슈타지(동독 국가보안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시작
- 슈타지는 (동독 인구의 6%인 100만 명의 조직원 보유) 비리가 엄청났고 분노한 인민들의 저항으로 슈타지 기관들은 습격 당했으며, 감시가 없어졌음
- 동독은 독일 통일을 위해 **서독, 영국, 프랑스, 미국, 소비에트연방과 협상**
- 소련은 독일의 통일 자체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동독이 NATO에 흡수되는 것을 원하진 않았고, 통일 독일이 NATO에서 탈퇴하진 않되, 동독 지역에 NATO군이 주둔하진 않는 것을 전제

슈타지: 동독 비밀경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현재 30개 회원국

통독 이후 가입(14개국): 폴란드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양독 간 협상과 통일 과정

- 1990년 5월 18일 동서독은 경제, 통화, 사회의 통합을 협상
- **1990년 7월 1일 경제통일이** 실시되어 서독의 독일 마르크로 화폐가 통일, 동독화폐가 폐지되었고, 구 동독화폐와 구 서독화폐가 새로운 화폐로 교환 **(1:1 비율)**
- 경제통일이 정치통일보다 선행된 이유: 동독주민을 동독지역에 잔류시킬 수 있는 조치 필요
- 1990년 8월 23일 동독 의회는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흡수통일(로타어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가 제안)에 동의
- 1990년 8월 31일 양쪽 독일의 대표는 '**통일조약(독일어: Einigungsvertrag)**'에 조인
- 9월 12일 독일은 주변국가와 함께 독일관련 최종해결에 관한 조약 (2+4 협상)을 조인하면서 공식적으로 주권을 인정받음
-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다섯 개 주가 서독으로 편입되면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짐**

독일의 통일 = 서독과 동독의 통합



[1990년 통일 당시 동서독 비교]

-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서독과 대략 세계 25위의 동독이 통합
- 인구도 서독은 6,200만명, 동독은 1,800만명으로 대략 4:1

• 통일과정에서 경제적 측면의 3대 문제점

- ▲ 동서독간의 화폐를 1:1로 교환
- ▲ 생산성 차이를 무시하고 동독 임금을 서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
- ▲ 동독 지역 토지를 원 소유자에게 실물 반환토록 시도 (220만건 소송)

- **2 + 4 회담** (1990.5.5.부터 4차례 회담, 조약 형식으로 합의): 오더-나이세 국경선의 인정, 통일독일의 화생방무기 포기과 37만명의 병력 상한선 유지,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 통일 독일의 나토 잔류
- 다른 나라에 통일의 과정을 안심시키기 위해 독일 연방공화국은 헌법을 두 번 고침 : 일단 통일을 적법화하기 위해 헌법을 수정했고, 통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헌법에 **“통일된 영토 바깥에 독일의 영토는 없다”**는 내용을 추가
- 1990년 12월 2일 동·서독총선이 실시되어, 기독교민주당과 자유당 연정이 집권

토의: 잘못 알려진 독일 통일

- **독일통일은 화해. 협력 정책으로 가능해졌는가?**
- 서독 사민당의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 (동방정책, Ost politik)은 독일이 중립화하거나 소련 및 동독과 화해. 협력하고 동독의 안정을 도우면 언젠가는 동독이 변해 통일이 가능해 지거나 '사실상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정책임
- '작은 걸음(Small Step)' 정책 또는 '작은 다리(Small Bridge)' 정책으로도 지칭되나, 실제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목적을 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정책이 민족의 이질화 방지와 분단의 고통 완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독일통일은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으로 동독 공산정권이 변해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동독주민들의 대량탈출과 시위로 동독 공산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임
- 반면 기독교민주당(기민당, CDU)의 '힘의 우위' 정책은 '자석 이론(Magnet Theory)'에 따라 서독을 정치, 경제, 군사, 도덕적으로 힘 있는 나라를 만들면 동독이 끌려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정책이 독일통일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음

- 초대 아데나워 총리 이후 기민당 정부는 소련의 중립화 통일 유혹을 거부하고 NATO에 가입하는 등 **친서방. 친미 노선을 견지 하면서 부강한 민주국가를 만드는데 주력하였음.**
- 1982년 헬무트 콜 총리 집권 후에는 **교류.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동독 지원이 동독 공산정권 강화에 이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 동독 경제지원 3원칙'을 준수**
- ※ **대동독 경제지원 3원칙: ① 동독이 먼저 요청할 때, ② 반드시 대가를 받고, ③ 서독의 지원 사실을 동독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지원**
- 서독의 대동독 지원은 항상 엄한 조건 내지 반대급부를 두어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대북협력의 지원 방식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음.

- 1963년부터 1989년까지 총33,755명의 동독 정치범을 석방시켰으며, 25만명의 이산가족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했음.
- 정치범 석방을 위한 대가로 서독은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 1977년까지는 인당 4만 마르크, 1977년부터 1989년까지는 인당 95,847 마르크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공했음
- **콜수상은 1982년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소련의 SS20 미사일배치에 맞서 퍼싱II 미사일을 배치**
- 특히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후에는 사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독 탈출자 58만 명을 전원 수용하고 **동독 공산 정권에 대한 경제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의 불만과 좌절을 통일 에너지로 전환시켜 통일을 달성

독일통일은 하늘이 준 선물인가?

- 1989년 8월 콜 총리는 **헝가리와의 비밀교섭**으로 동독주민들이 헝가리를 통해 대량탈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음
- 1990년 3월 경제 전문가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화폐의 1:1 교환을 약속, 동독주민들이 통일을 선택하도록 유도함
- **프랑스, 영국, 소련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2차 대전 전승국들의 동의를 확보
- 동독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교류를 통해 서독 체제를 믿게 되었고 통합되기를 원함

동·서독 정상회담은 동·서독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었는가?

- 동·서독은 1970년 1,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기본조약을 체결
- 동·서독은 동독혁명 전까지 정상회담을 네 번 개최했으나 1987년 9월 서독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별무
- 정상회담이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도와 득실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정상회담 쇼??**

1990년 7월 독일-소련 회담(코카서스회담)



한국 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미국의 역할

- 장기적으로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 등장 이후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화해정책'을 추진한 것이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소련의 개혁정책을 이끌어 낸 배경이 되었음
- 동독 평화혁명 이전부터 독일통일을 확고히 지지, 콜 총리가 베를린 장벽 붕괴를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추동력을 제공함.
- **프랑스, 영국을 설득하고 소련을 압박하여 2차 대전 전승국들이 독일통일을 승인토록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

레이건과 고르바췌프



결론: 독일 통일의 3대 요소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 국제정세와 내부역량이 동시에 작용할 필요

啐啄同機

떠들 줄 쪼 탁 한가지 농 베를 기

1. 서독의 경제력

2. 독일의 단결력

3. 미국의 지원

통일 이후의 문제

- 통일비용이 당초보다 훨씬 많이 들어
경제적위기 발생
 - 구동독인들의 소외 문제
 - 통독 후 체제 통합의 어려움
 - 슈뢰더 수상외 하르츠 개혁으로 위기 극복
 - 2002년 8월 '하르츠 보고서'에 따라 '하르츠 I ~IV'로 법제화돼 2003~2005년 단계적으로 시행
 - 노동시장 유연화, 실업자 복지혜택 축소, 창업 활성화가 핵심
- 별도의 기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 보기를 기대합니다.